

### 백년의 궤적, 살아 있는 지혜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전

청빈한 삶과 서릿발 같은 수행으로 불교계는 물론, 대중들의 가슴에 큰 족적을 남긴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민회관은 개관 40주년기념으로 2월 20일까지 부산시민회관 한울갤러리에서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펼친다.

이번 전시는 '백년의 궤적, 살아있는 지혜' 부산시민회관서...2월 20일까지 사진 회화 유품 등 100여 점 전시

해를 만나다'를 주제로 성철 스님의 탄신부터 수행, 열반까지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유품, 사진 등 100여점이 전시된다.

1층 전시장에서는 '탄신과 출가'의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성철 스님의 유품, 친필 등이 일대기 형식으로 전시된다. 성철 스님 부모님 사진, 스무 살 때 적은 서적 목록인 '이영주 서적기', 출가시

절 사진, 사미계를 받아 승려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첩 등이 전시된다.

또한 '일대기와 대비식'의 모습을 담은 10여부의 영상자료, 김호석 작가의 '그날의 화엄', 사리탑 등을 통한 '열반과 대비식'의 자료까지, 성철스님의 일생 궤적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2층 전시장에서는 주병덕 작가의 사진 작품들이 다수 전시되어 생전의 성철 스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병덕 작가의 사진 19점, 김호석 작가의 그림 7점이 전시된다.

여기에 '발원문', '십이명', '납자십계', '공주규약' 등의 중요 친필자료들은 원문해석 자료를 함께 전시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민회관 측은 "김호석 작가의 그림 작품들은 기존의 성철 스님 기념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작품이다. 또한 스님의 일대기뿐 아니라 다양한 시선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라고 전했다. (051)630-5228

정혜숙 기자



성철 스님의 두루마기(사진 왼쪽)와 김호석 작가의 '그날의 화엄'

### 이승노미술관 기증작품 수장고 부족

그림 훼손 우려...예산확보 시급

고암 이승노(1904~1989)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전시하고 연구하는 대전 고암미술문화재단이 수장고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현재 둔산대공원대전한밭수목원 내 이승노미술관 지하 1층에 약 36평 규모의 수장고는 800여 작품을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재단 소장 작품이 1천200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해서 작품을 들여올 예정이다.

그동안 작품을 기증해온 고암의 미망인 박인경 여사만해도 1만점 이상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여사는 최근에도 미공개 작품 등 고암의 대표적인 유작 664

점을 기증했다. 이처럼 귀하게 들어온 작품들은 현재 수장고 부족으로 바닥에 놓여 있거나 액자에 넣어보지도 못한 채 방치된 상태 그대로 종이장처럼 쌓여 있다.

또 기존 수장고 구조가 폭 2-3m가 넘는 대형 작품은 보관할 수 없어 바로 옆 시립미술관의 공간을 빌려쓰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시작돼 두 달간 계속되는 특별 전시가 끝나면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액자에 넣었던 작품을 다시 꺼내야 할 판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수장고 부족 문제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고암 작품들의 셋방살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숙 기자

# 시대의 등불 되어준 <선문촬요> 집중 조명

부산MBC 특집 다큐 '마음 속 부처를 읽다'

<선문촬요>(禪門撮要)의 편찬 과정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 부산 MBC 다큐멘터리 '선문촬요, 마음 속 부처를 읽다'는 <선문촬요> 인경 영인본의 제작과정과 시대별 <선문촬요>의 편찬기록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기틀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선문촬요...'는 지난 10여 년 간, 범어사가 <선문촬요> 목판본 중 소실된 일부를 복각(목판 복원)작업과 인경(목판인쇄)을 거쳐 재편집하고 디지털화 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또한 1908년 구한 말 당시, 범어사에서 <선문촬요>를 개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밝힌다. 이후 <선문촬요>가 '선학의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한글판 번역과 현대 작업에 힘쓴 스님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담당 PD 윤성준 씨는 "(<선문촬요>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어록으로 한국 선문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서적이다. 구한 말, 범어사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지난 100여 년 동안 범어사 수장고에 보관되어 왔다. 이 책을 21세기에 새롭게 인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집중책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라며 기획의도를 설명한다.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된 <선문촬요>는 상·하 2권으로 편찬된 목판화본이다. 이 서적은 조선 후기 경허 스님이 엮었다고 전해지는데, 상권은 1907년 청도 운문사에서 개간했고, 하권은 1908년 부산 동래 범어사에서 개간했다.

기존의 경전이 중국 스님들을 중심으로 편찬된 반면, <선문촬요>의 하권은 지눌 스님의 저술을 중심으로 편찬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당시의 불교계가 한국 고유의 선불교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선문촬요>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선문촬요> 편찬 과정 기록 한국 선불교 성립에 기여 2월 2일 밤 11시 방영

다큐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시대와 함께한 <선문촬요>의 탄생과정과 이후의 편찬 과정을 따라간다. 1898년, 범어사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문을 일으키고자 선원을 열고 경허 스님을 모셨다. 이후 스님은 북쪽으로 떠나고 1908년, 제자들은 경허 스님의 이름으로 <선문촬요>를 개간한다.

이후 일제강점기 백용성 스님이 옥고를 치른 후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선문촬요>를 한글로 번역하고 선의 대중화를 이룬다. 해방 이후 범어사의 동산 스님을 중심으로 일본 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 불교의 전통과 정통을 세우기 위해 정화운동을 이끌어낸다.

동산 스님 입적 후, 제자인 설봉 스님은 1968년, 정화운동의 기치를 드높이고 선의



부산 MBC 다큐멘터리 '선문촬요, 마음 속 부처를 읽다'는 <선문촬요> 인경 영인본의 제작과정과 시대별 '선문촬요'의 편찬기록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기틀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사진제공=부산MBC

등불을 이어가고자 탄허·윤허 스님 등과 함께 우리말로 토를 단 <선문촬요 현토본>을 만든다.

신자현 작가는 "(<선문촬요>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해 개간돼 왔다. 경허 스님의 <선문촬요>는 1900년 초 서구 열강의 침략과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정기를 고취하고 한국 선불교의 기틀을 마련했다. 백용성 스님의 <선문촬요>는 일제강점기 이후 불교서적을 한글판으로 번역하여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불교정화운동 이후, 설봉 스님의 <선문촬요>는 불교 내부의 갈등을 완화하고 조계종의 확립에 기여했다"며 선문촬요가 불교사와 한국 역사에 끼친 영향을 설명했다.

경허 스님의 <선문촬요>가 개간된 지

104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선 해방됐지만 각종 범죄와 공황장애, 자살 등 인간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그리고 이 혼란한 시대 (<선문촬요>)는 다시 한 번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2012년 새롭게 인경된 <선문촬요>는 한국의 선불교가 지금까지 숭한 변화와 역경을 거치면서도 꿋꿋이 민족의 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허 스님의 선맥을 이어 21세기 <선문촬요>의 디지털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범어사의 현재를 보여주며 다큐는 마무리 된다. 방송은 2월 2일 밤 11시 10분에 전파를 탄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선화가 명상에세이 만나 치유를 말하다

이시형 박사의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 출간 기념...김양수 화백 자연명상 그림 전시회

이시형 박사의 명상에세이집 출간을 기념한 김양수 화백의 자연명상 그림 전시회가 시가 1월 30일~2월 4일까지 토포하우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시형 박사의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에 실린 김 화백의 선명상 그림을 비롯해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시형 박사가 몸으로 부딪힌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 명상에세이다.

책에는 대구 팔공산 산골에서 자란 어린

시절, 작은 아버지 집에 양자로 들어간 자신의 이야기 등이 실렸다. 또한 최근 흥천 힐리언스 선마를 총장이 되어 자연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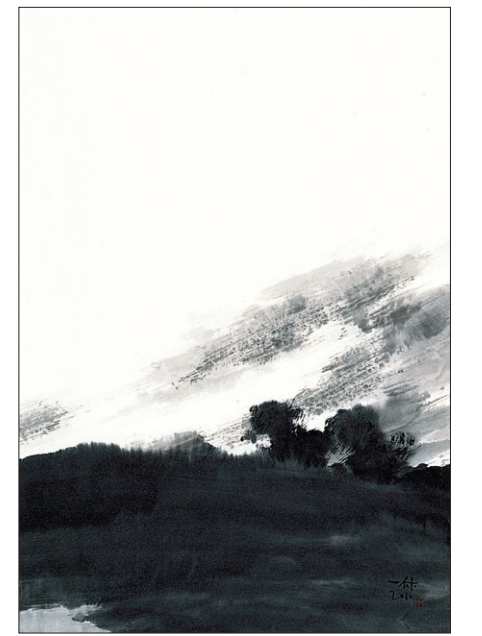
토포하우스 2월 4일까지 명상 힐링 강연도 펼쳐져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여기에 김양수 화백의 자연 명상 그림이 각 장(8장)마다 들어가 자연의 아름다움, 명상의 깊이를 더했다. 김 화백은 "이시형

화백이 많은 책을 냈지만 에세이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에 살면서 겪은 이야기를 집필하다 보니 내 그림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고 이번 전시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명상과 힐링에 대한 강연도 펼쳐진다. △31일 우종민 교수의 '숲, 힐링이야기' △김효선 작가의 여행이야기 김양수 화백의 그림 이야기 △이시형 박사의 명상 이야기 등이 펼쳐진다. (02)734-7555

정혜숙 기자



김양수 작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 동의보향

DONGUIBOHYANG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성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향상 깨끗하고 맑은 향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드리는 덤 증정행사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소팅백포장까지 드립니다)

- 용 도 : 지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 공간 비치용
- 규 격 : 북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제조원 : 수풀림 주문전화 :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 해운스님 2013년 영험한 소지용 기달마도

### 영험(靈驗)한 소지용 기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해운스님은 전국의 불자들에게 10만여점의 기달마도를 그려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기달마도는 결혼/건강/회사원/운전/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재수달마도는 자영업/주식/승진/사업/부동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달마도를 받으신 분들이 효험을 보자 많은 분들의 신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달마도를 소지하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십시오. 달마도 보시기는 3만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해운스님 달마복지관 건립보수에 사용되어 집니다.

해운스님 일력  
지친 원한과 허물과 기를 보듬어 주는-귀요미  
한양미술 대학(한국 미술대학) 졸업  
14회 불교미술 대전 공예 최고수준에  
시대한국 문화융합 예술대상  
서울경향 미술대전 최우수작품  
국립미술 재충충로 14년  
부산시립 불교미술  
국립(일)미술관(부산) 2009년  
국립(일)미술관(부산) 2009년 MFC 상설미술관  
2012년 불교TV, 2012년 방영  
(한해운 달마봉사 주지)

해운스님 기달마도 신청하세요  
☎(055)353-9925

(주)에스큐 마하엔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티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